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 (2)

-운동권 여대생 소설의 1990년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

배하은

DGIST 교양학부 조교수

목차

- 1 서론: ‘권 양 성고문 사건’ 이후
- 2 젠더화된 운동권 주체의 진정성
- 3 섹슈얼리티의 극복이라는 주체화 기제의 문학적 코드
- 4 결론: 송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국문초록

부천서 성고문 폭로 사건 이후 권인숙이 운동권 여대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운동권 여대생 주체 구성의 상징체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징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등장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이다. 1991년 7월,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출간된 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과 공지영의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에서는 운동권 경험을 지닌 두 여성 작가가 운동권 여대생의 서사를 통해 섹슈얼리티 문제와 함께 운동권 여대생의 정치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글에서는 당대에 대중적인 파급력을 지녔던 김인숙과 공지영의 두 소설 텍스트에서 운동권 여대생의 섹슈얼리티 극복이라는 주제가 문학적으로 코드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행하는 주체의 헤게모니가 ‘성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변화한다는 점을 규명한다.

국문핵심어: 운동권 여대생, 섹슈얼리티, 정치적 주체, 진정성, 1990년대, 낭만적 윤리

1 서론: ‘권 양 성고문 사건’ 이후

“권양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 담담한 당당함에 ‘짓밟힘으로써 더욱 크게 일어난 여성’이란 그녀에 대한 표현을 수긍하게 될 것이다.”¹ 1987년 7월, 특별 가석방으로 풀려난 권인숙과의 인터뷰 후 《여성동아》의 기자는 그녀를 이렇게 평했다. 13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과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권인숙은 더 이상 치욕스러운 성고문의 피해자나 신군부 독재 정권의 희생양이 아닌, 극심한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위대하게 일어난 여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권인숙의 폭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신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1 「[독점인터뷰] 13개월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성고문 사건’의 권양」, 『여성동아』, 1987년 8월호.

투쟁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까지만 해도 ‘권양’은 익명으로 남아 있어야 했지만 이윽고 같은 해 10월 국가로부터 받은 고문배상금 3천만 원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설립하면서는 마침내 ‘노동운동가 권인숙’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때 운동권 내부에서 소외당하곤 했던 미숙한 운동권 여대생은 이제 명실상부 진정한 ‘운동가’로 다시 선 것이다.

권인숙의 변화가 단순히 그 자신으로 국한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권인숙이 운동권 여대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운동권 여대생 주체 구성의 상징체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징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등장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이다.² 1991년 7월,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출간된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상·하(동광출판사, 1991),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1·2(동녘, 1991)는 이른바 ‘권양 성고문 사건’ 이후 운동권 여대생 주체를 둘러싼 변화의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운동권 여대생 출신 작가 김인숙과 공지영의 이 두 장편소설은 운동권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겪는 사랑과 방황, 성장과 자아실현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펼쳐 보인다. 그리고 운동권 여대생이 운동권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운동권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공식적 집합체로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찍이 운동권 대학생 서사는, 여대생 소양의 혼란과 방황을 그린 강석경의 『숲속의 방』(민음사, 1986)이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이후 학생 운동 체험을 비롯해 현실적인 제약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방황을 잃고 실존적 고뇌에 휩싸여 있는 대학생들을 그린 소설들이 쏟아져 나온 흐름 속에서, 1980년대 말

2 이 글에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김인숙과 공지영의 소설은 작가가 운동권 여대생이며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운동권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 특유의 의식과 경험을 소설의 주요 소재와 사건으로 삼고 있다. 김인숙과 공지영 그리고 이들의 문학 텍스트에서 386세대의 경험과 세계관에 대한 어떤 전형성을 도출하려 한 사회학적 분석에도 두 작가가 운동권으로서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1980년대를 보낸 경험과 그것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주목한 바 있다.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김인숙, 공지영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그런 점에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이라는 용어에서는 작가와 작품 텍스트 양자에 대하여 운동권 여대생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과 1990년대 초 사이 부상했다.³ 그러나 그러한 흐름에서 두드러지는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실천문학사, 1990)나 박상우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세계사, 1991)이 여실히 보여주듯, 운동권 ‘여대생’의 경험이 서사화되는 일은 드물었다. 운동권 여대생 출신인 김인숙과 공지영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는 김향숙의 『종이로 만든 집』(문학과비평사, 1989)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운동권 여대생 서사의 본격적인 등장보다 더 중요하고 문제적인 변화는 운동권 여대생의 섹슈얼리티와 그것에 가해지는 폭력이 서사 전면에서 가시화되고 이러한 서사에서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성을 일정하게 코드화하는 양상에서 찾아야 한다. 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에서는 운동권 여대생 은재가 야학 활동을 하던 시골 마을 청년 만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고통과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가운데 만우를 진정한 노동운동가로 거듭나게 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한편, 공지영의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은 자기 자신의 무지, 미숙, 한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운동에 투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두 명의 주인공 지수와 은수의 변화를 그리는 소설인데, 부르주아적인 여대생 지수의 섹슈얼리티가 캐릭터의 핵심적인 요소로 형상화되고, 소설 속 운동권 서클의 핵심 인물인 은경, 그리고 운동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물 명화가 성폭력을 당한 후 성장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는 모습이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분명 ‘권 양 성고문 사건’ 이후 권인숙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성된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성이 무엇이었고 당대에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담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권인숙의 사건 이전 1980년대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성은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섹슈얼리티를 표백 또는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주체성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⁴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김인숙과 공지영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권인숙 이후 운동권 여대생의 변화된 1990년대적인 주체 구성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1990년대적인 징후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김인숙

3 이재현, 「[발문] 방황, 상처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2』, 동녘, 1991, 264쪽.

4 배하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 1980년대 운동권 여대생의 정치적 주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40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12쪽.

과 공지영의 두 장편소설은 당대 비평의 진지한 주목과 평가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학사적인 관점에서조차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형편이다. 당대 문학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민중문학론에 비추어 본다면 이 두 소설 텍스트는 멜로드라마 또는 하이틴소설처럼 지나치게 대중적인 감수성에 호소하는 문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충분히 리얼리즘적이지도 이념적이지도 않아 운동권이라는 소재만을 차용한 통속적인 대중문학으로 폄하되기 쉽다. 따라서 차라리 ‘진정한’ 대중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서둘러 인정해 버리는 것 이상의 독해는 어려웠다.⁵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를 여성문학의 시대로 명명하려는 페미니즘 문학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두 소설은 실로 퇴행적이다.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두 여성 작가가 이러한 소설로 1990년대를 열었다는 사실은 페미니스트 비평가와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러한 까닭에 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스듬히 읽기’를 표방하여 성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진짜 노동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이 소설의 서사 이면을 읽어내는, 즉 억압적인 민족·민중문학론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여 읽는 여성 독자를 탄생시키는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이끌어 내려 한다.⁶ 다른 한편으로는 비약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령 이 소설의 마지막 법정 장면에서 침묵하는 은재의 부끄러움을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도 아닌, 오직 ‘민중’을 현현하는 이들을 위한 환대의 자리만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시민의 위계를 노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 소설이 여성문학 연구자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텍스트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⁷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소설 텍스트들을 권인숙 이후 주체 구성의 새로운 지평에 놓인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성,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990년대적인 주

5 김철, 「진정한 대중문학을 위하여」, 『실천문학』, 1991년 가을호.

6 김은하, 「이중의 글쓰기와 비스듬히 읽기—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77호, 우리문학회, 2023.

7 이한나, 「부인된 성적 자기결정과 기이한 평화—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체 구성의 향방을 시사하는 징후적인 텍스트로 분석한다면, 일정 부분 해석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운동권 경험을 지닌 두 여성 작가가 운동권 여대생의 서사를 통해 섹슈얼리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 텍스트를 ‘권 양 성고문 사건’ 이후라는 컨텍스트 안에 (재)배치할 때, 그간 김인숙과 공지영의 작가론에서 건너뛰곤 했던 이 두 개의 텍스트는 의외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 즉, 1980년대 대항 이데올로기에 의해 헤게모니적 주체로 군림하였던 운동권 (남성) 주체의 틈새에서 운동권 여대생이 정치적 주체로 구성되는 가능성을 실현한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 폭로 이후,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성에 대한 담론은 1990년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변화하는 주체의 헤게모니와 에토스를 목격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당대에 대중적인 파급력을 지녔던 김인숙과 공지영의 운동권 여대생 소설 텍스트 안팎에서 운동권 여대생의 섹슈얼리티 극복이 코드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행하는 주체의 에토스가 ‘승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변화한다는 점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젠더화된 운동권 주체의 진정성

1980년대를 풍미한 시대정신, 또는 집단적 신념, 가치, 정서로 나타나는 어떠한 양태와 성질로서의 진정성을 일종의 체제인 ‘마음의 레짐’으로 규정하는 논의에 따르면,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립된 이 체제 하에서 특정한 주체, 즉 진정성의 주체가 형성되었다.⁸ 소위 386세대라고 불리는 운동권 주체가 이 진정성의 주체 대표 격이라는 점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화운동의 전위 한 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그렇게 수립된 정치 체제인 이른바 ‘87년 체제’의 주체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인 까닭이다. 그리하여 진정성은 1980-90년대라는 시대의 ‘주역’이었던 386세대의 ‘마음의 레짐’이었고, 나아가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진실함, 진리, 이상, 진품과 같이 어떤 우월한 지위의 관념들이

8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9-24쪽.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 세대가 전유한 일종의 상징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문학적 진정성을 탐구축하는 비평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진정성은 시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세대의 체제가 아닌, 사회적 위치를 통해 생산되는 주체의 문제로 재규정되기 시작했다.⁹ “민주화운동을 통해 진정성을 형성한 주체인 386세대와 그 영향을 길게 받은 아래 세대는 이미 젠더적, 계급적, 지역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주로 대학 교육을 받은 비장애인 이성애자 지식인 남성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질적인 집단적 주체인 까닭이다.¹⁰ 그러므로 진정성은 단순히 1980년대(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1990년대)라는 시대와의 일차함수 관계로는 이해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젠더라는 주체 구성의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심급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젠더화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과 운동권 주체의 젠더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으므로 여기서 새롭게 부연할 것은 없다.¹¹ 다만 운동권 주체가 젠더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구조에 진정성의 이념이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아의 에토스인 진정성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삶을 억압하는 신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써 실천되었다. 그러했기에 진정성 체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의 척도는 그 저항의 강도, 밀도, 또는 순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의 시작이자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점, 그리고 학생 운동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기폭제였던 5.18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들이 보였던 무장 투쟁의 극한적 저항을 떠올린다면, 왜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일관되게 자신이 학생 운동에

9 인아영, 『진창과 별』, 문학동네, 2023, 144-145쪽.

10 위의 책, 144쪽.

11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을 참조. 김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성된 주체 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 상징정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전희경, 『오빠는 필요 없다』, 이매진, 2008.

투신하게 된 계기로 5.18을 거론하곤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저항의 척도에 따라 진정성이 판별되는 운동권 사회에서는 운동권 남성만이 진정성의 주체로 생산되는 구조가 자리 잡기 쉬웠다는 것이다.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신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운동권은 마찬가지로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 시위의 형식을 택했다. 이러한 양식의 저항이 일반적일 때 운동권의 진정성은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남성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애초에 운동권 조직 내 성별 분업에 따라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언제나 운동권 남성이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지영의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에서도 주인공 은수가 학생 운동에 깊이 발을 들여 놓게 된 계기는 이따금 학습 서클에서 공부를 도와주던 남자 선배 명진이 도서관 창문 유리를 깨고 창밖에 서서 절규하던 시위 현장을 목격했던 일이었다. 명진의 외침이 캠퍼스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 아래에서 적은 수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는 동안 은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애달픈 마음”을 느낀다.¹² 은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명진과 함께 시위대의 처절한 저항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의 정념이었다.

열사의 죽음은 그러한 정념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최대치로 경험하게 하는 민주화운동 특유의 저항 양식이다. 의로움과 숭고함, 그리하여 진정성과 연관되는 열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그것을 직접 목도하거나 (추)체험하는 자들에게 가장 극적인 도덕적 고양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아예 도덕적인 퇴로를 차단하는 공포와 숭고의 기획이다.”¹³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열사라는 민주화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주체 역시 남성에 의해 전유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사이트에 정리된 열사 정보에서 118명의 학생 열사 가운데 여학생은 12명뿐이다.¹⁴ 만일 이러한 숫자의 불균형이 당시 대학생 성비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학생 열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성별이 무엇인지

12 공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1』, 동녘, 1991, 153쪽.

13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 74호, 문화과학사, 2013, 104-105쪽.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patriot/category/%ED%95%99%EC%83%9D%EC%97%B4%EC%82%AC/page/1> 최종 검색 일자: 2024년 5월 15일.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¹⁵ 요컨대 운동권 여대생이 열사가 된다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이었고, 만일 열사가 된다 하더라도 할복이나(김상진) 분신(김세진) 자살, 또는 시위대 앞줄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거나(이한열), 고문사당한(박종철) 남성 열사들의 장렬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열사의 죽음에 미달하는 규정 불가능한 죽음(박혜정의 한강 투신 자살)으로 간주되기 쉬웠다.¹⁶

저항의 정도와 그 힘의 크기가, 칸트 식으로 말해 ‘역학적-숭고’의 측면에서 운동권 주체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인식능력적 숭고, 다시 칸트 식으로 말하면 ‘수학적-숭고’의 측면에서의 진정성이란 주체의 동일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¹⁷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이 고찰했듯, 진정성에 선행하여 나타났던 진실성(sincerity)이라는 도덕적 삶의 가치와 미덕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자기 자신과 일치·합치(congruence)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 되기 (being true to one's own self)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되지 않도록 하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한다.¹⁸ 따라서 이러한 진실성이라는 가치가 도덕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와 사회에서는 위선, 즉 참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배반,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만이 곧 악이었다.¹⁹ 진정성의 앞선 형태이기도 한 진실성의 이러한 특성은 진정성에 일정 부분 동일성에 대한 환상이 내재해

15 1983년 주요 대학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서울대 24.1%, 연세대 31.5%, 고려대 24.5%, 한국외국어대 32.4%였다. (『대학마다 ‘여학생 급증’에 고심』, 『동아일보』, 1983. 12. 12.) 비록 단적인 수치이지만 이러한 점을 통해 학생 열사의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온전히 대학생 성비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6 1986년 5월 21일 “분신자살로 치닫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한 서울대생 박혜정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학생 열사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박혜정의 죽음 당시에는 서울대 운동권 내에서 그녀를 열사로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있었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지만 다수 의견은 열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천정환, 앞의 글, 96쪽.)

17 숭고를 인식능력에 의한 수학적-숭고와 욕구능력에 의한 역학적-숭고로 구분하는 이론적 논의는 칸트의 『판단력비판』 참조.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252쪽.

18 Lionel Trilling, *Sincerity and Authenticit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5-6.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체가 참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과 일치·합치될 수 있다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해서 성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진실성은 더욱 불가능한 영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동일성에의 신념, 갈망, 열정이 진정성을 구성하는 것들일 때, 진정성은 또 다시 운동권 여대생이 획득하기 어려운 자질이 된다. 운동권 사회의 젠더화 양상에 대한 논의들에서 지적되었듯, 가부장제 사회, 그리고 그것의 하위 구조인 가부장주의적 운동권 사회는 남성의 경험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내부에서 여성은 개인 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²⁰ 애초에 한 명의 개인이 될 수 없는 운동권 여대생에게 자아의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운동권 여대생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긴밤 짧게 찾아온 아침』에서 은재가 만우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야학 활동과 빈민 탁아 활동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쩌면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진심으로 버려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거나 “더럽혀진 것은 몸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자신이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한다.²¹

한편 1980년대 운동권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또 다른 열망이 민중을 향해 있었음은 운동권 내에 편만했던 민중지향성 또는 반지식인 정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 운동권 대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지닌 엘리트로서의 기득권을 단호하게 버리고 민중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곧 진정성의 실천이었다. 이는 명문대 졸업 후에 예비되어 있는 좋은 직장 and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버려야 하는 단지 미래의 일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과 방식, 습관까지도 완전히 바꾸고 욕구와 감정까지도 억압해야 하는 즉

19 Ibid, pp. 14-16.

20 전희경, 앞의 책, 40쪽.

21 김인숙,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 상』, 동광출판사, 1991, 146-147쪽.

각적인 훈련이었다. 요컨대 계층적으로 존재의 완벽한 전환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시기 대학에 진학했던 여학생들 가운데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대중문화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표상되었던 여대생의 이미지가 사치와 허영, 향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여대생의 출신 계층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여성지의 ‘여대생 르포’ 특집에서 신촌 연세대 앞에 3억 원을 들여 만든 초호화 레스토랑의 주요 고객이 여대생이라거나, 여대 앞에 즐비하게 늘어선 외제 액세서리 가게와 여대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디스코장, 대학 캠퍼스 내 여대생 ‘마이카족’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등의 가십을 늘어놓는 일은 기사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여대생들이 그러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계층 출신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²² 이와 대조적으로 남학생들 가운데는 비록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희생—가령 남자 형제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여공으로 일하는 누이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에 등장하는 운동권 남학생 기훈과 남호 모두 가난한 집안 형편과 운동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인 데 반해, 지수는 상류층, 은수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상류층인 지수의 사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상이한 조건 하에서 민중과의 일치·합치를 통한 동일성으로써 주체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일이 어느 쪽에게 더 용이한 것이었는지, 반대로 어느 쪽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이었는지는 자명하다. 게다가 출신 계층으로 인해 ‘프티부르주아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운동권 여대생들에게 1980년대 운동권의 민중지향성을 따라 규정된 언어와 외모, 생활 방식 등의 규범은 훨씬 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²³ 공지영의 소설에서는 주인공 지수의 외모와 패션을 매우 빈번히 상세하게 묘사하며 지수가 운동권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

22 「[르포] 오늘의 여대생—화염병에서 마이카까지」, 『여성동아』 1986년 7월호, 221쪽.

23 권인숙, 앞의 책, 130쪽.

였는지를 암시하곤 한다. 기훈이 지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도 그러한 계층 격차의 걸림돌 때문이다.

지수가 벗어 놓은 붉은 샌들이 모래사장에 얌전히 놓여 있다. 기훈은 그 신발을 오래 바라본다. 그림에 나오는 이집트의 배처럼 길고 뾰족한 신발이었다.

—산길을 갈 수는 없겠지. 모래 위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눈이 내리면 미끄러질 것이다. 저에는 아마 다리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제 구두가 더러워지는 걸 못 견뎌 할 거다.

기훈은 얼굴을 부빈다.²⁴

지수가 타고난 환경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운동권인 기훈 자신과 함께할 수 없으리란 그의 예감은 자신을 향한 지수의 사랑을 알면서도 끝내 기훈이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다. 나아가 그러한 지수와 함께 있을수록 기훈은 점점 더 “불길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지수의 영혼 한 부분이 자신의 것과 합쳐진다는 것”이다.²⁵ 어느 날 길을 가다 쇼윈도에서 밀짚모자를 보고 지수를 떠올린 기훈은 자신의 한 달 치 용돈보다 비싼 모자의 가격을 듣고 나서 자기 가슴에 드리워지는 불길함을 예감한다. 그것은 시나브로 지수의 부르주아적 성향에 물들어 가다 결국 운동에 헌신하고자 했던 자신의 진정성까지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다.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에서는 운동권 여대생 은재가 스스로 그러한 불길함을 자괴감과 열등감, 그리고 죄악감으로 증폭시켜 체감한다.

경애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가진 것에 운동이란 이름을 하나 더 얹어 가지려고 들었을 뿐이라는……. 그렇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은 그저 약간의 양

24 공지영, 앞의 책, 291쪽.

25 위의 책, 같은 쪽.

심을 덧붙였을 뿐인, 게다가 위선적이기까지 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은 남들의 시선인 것만은 아니었다. 은재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은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한 흔적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 어디든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가요나 풍물 따위보다는 모차르트 슈베르트가 더 감미롭고, 한 잔의 막걸리도 보기 좋게 마실 줄 모르는 주제에, 고풍스러운 유리창이 가득 찬 레스토랑 앞에 서면 향기 좋은 커피 생각이 간절했던 기억. 진저리가 쳐지게 싫었던만 아무래도 떨구어낼 수가 없었던 그 더러운 부르주아적 습성……. (….) 예컨대 경섭, 그는 은재보다도 훨씬 더 부잣집 아들이었고 훨씬 더 귀족적인 성장 과정을 겪었으리라. 그런 그가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는 민중적 분위기를 왜 자신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인가. 은재는 생각했다. 하루아침에 세계관도 달라졌는데, 습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몸에 밴 습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어쩌면 세계관의 문제지.²⁶

은재의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은 그녀가 그간 헌신해 온 야학 활동과 빈민 탁아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이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녀는 야학 활동을 나갔던 사읍의 마을 사람들과 운동권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고, 만우의 장애를 가진 여동생 기숙이 몰라보게 변화할 만큼 진실된 사랑으로 아이들을 맡아 양육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당한 성폭행은 지금까지 그녀가 주체적으로 일구어 온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은재가 이와 같이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느끼는 것이 자신의 위선, 즉 자기 자신의 진정성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여기는 데 있다. 만일 “나 자신을 진심으로 버”리고 “민중에 대한 순결한 애정과 발전하는 역사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당한 성폭력조차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이한 강박

26 김인숙, 앞의 책, 147-148쪽.

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²⁷ 달리 말하면, 은재는 자기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실상 만우와 같은 하층 계급 민중을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자신과는 결코 이성 관계로, 그리고 성적으로 엮일 수 없는—존재로 취급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죄악’이 자신의 강간 피해 사실과 함께 마땅히 위로받아야 할 그 고통까지도 압도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젠더 의식과 섹슈얼리티 윤리에 비추어 볼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실상 1980년대 당시 민중과의 일치, 합일, 동일성으로 주체의 진정성을 보증한다는 관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운동권 주체를 억압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김인숙의 소설을 통해 드러나는 더욱 문제적인 측면은, 운동권 여대생에게 민중과의 합일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이념이 성폭력을 당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죄악시하게 만들 만큼 병적인 억압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젠더화된 운동권 주체의 진정성 체제 하에서 운동권 여대생은 비단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젠더적·계층적으로 상이한 주체의 진정성에 의한 억압과 차별, 배제, 그리고 분열을 겪었다. 권인숙의 성고문 폭로 사건이 어떤 중대한 변수로 개입한 것은 운동권 여대생들이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의 한복판에서 있던 무렵이었다.

3 섹슈얼리티의 극복이라는 주체화 기제의 문학적 코드

오직 진실을 위하여, 오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권 양은 처녀로서의 수치심과 명예를 모두 내던져 버렸으며 처녀로서는 차마 밝힐 수 없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기 위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건 눈물 겨운 결단은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양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 양의 의로운 절규는 저 두꺼운 감방의 벽, 저 엄청난 억압의 벽을 헐고 나와 마침내 세상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닿았습니다.²⁸

27 위의 책, 146쪽.

28 「변론 요지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편, 『우리들의 딸 권양: 성고문

권인숙의 변호인들이 낭독한 변론 요지서의 이 대목은 성고문 폭로 사건을 통해 권인숙이라는 운동권 여대생이 마침내 운동권 주체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그것은 곧 그녀의 행위가 진실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결단과 투쟁으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운동권 여대생의 섹슈얼리티는 비가시화되어야만 하는 것이 권인숙의 사건 이전 운동권 여대생 주체 구성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치욕스러운’ 섹슈얼리티 문제가 전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인숙이, 마치 열사와도 같이, “잠들어 있던 양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고문 사실을 폭로하는 자기 희생적인 행위로써 신군부 독재 정권이 은폐하려한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열사의 죽음이란 “너무 억울하거나 끓어오르는 의분을 어찌 못한, 그러나 ‘법’을 위시한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수단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저항을 하거나, 누구도 봐주지 않는 진실을 알리려는 절망에 찬 행동”이다.²⁹ 운동권 여대생은 남학생 열사들처럼 죽음으로써 자기 진정성의 최대치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당시 도덕 규범 하에서 목숨과 같이 소중한 간주되었던 ‘성적 순결’을 희생했을 때 그와 동등한 수준의 진정성을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로 권인숙을 유관순에 빗대고 있는 어느 시에서 찬미한 것처럼, 권인숙은 죽지 않았지만 열사와도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³⁰ 요컨대, 권인숙의 사건이 운동권 여대생의 주체 구성 조건에 초래한 두 가지 변화는 섹슈얼리티를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신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위해나 폭력, 억압과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듯 김인숙과 공지영의 소설에서는 운동권 여대생

자료집 I』, 민중사, 1987, 236쪽.

29 천정환, 앞의 글, 114쪽.

30 그 시의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무슨 큰 사명이기에/ 그대 고난이 이다지도 천길 낭떠러지인가/ 무슨 큰 사명 모진 사명이기에/ 그대 짓밟혀/ 우리 모두의 잠든 몸 때려/ 온통 소스라치게 하는가/ 왜놈들 이 땅을 짓밟았을 때/ 처녀 유관순은 감옥에서 죽었다 맞아죽었다/ 그 유관순 이래/ 그대가 있다” 「겨레의 처녀 권양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편, 앞의 책, 33쪽.

의 섹슈얼리티가 두드러지게 재현된다. 그리고 그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폭력을 극복함으로써 성장한 운동권 여대생이 ‘참된’ 운동권 주체로 거듭난다는 스토리 패턴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이 특유의 방식으로 운동권 여대생의 진정성을 코드화하는 양상과 관련하여 두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에서는 서클 내부의 학습과 시위, 활동을 주도하고, 나아가 방향하던 지수를 이끌어 주기까지 하는 중요한 인물인 운동권 여대생 은경이 겪었던 일을 서브플롯으로 내세운다. 은경은 자신이 갓 스무살이었던 때 학생 운동권 내에서 굉장한 거물이었던 강 선배의 군 면회를 갔다가 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일을 지수에게 고백한다.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은경에게 달려든 선배와 30분간 “필사의 싸움”을 벌였던 “그 밤의 악몽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도 않았다.”³¹ 그 일이 있은 후, 애초에도 피성 군 입대를 택했던 강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은경은 그에 대한 복수심에 시위의 주동자 역할을 맡았으나 실패하여 큰 실의에 빠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강 선배와 같은 남성 운동권 거물들이 떠나가거나 실패하는 동안 은경은 도리어 성장하여 그들보다 더욱 성숙하고 ‘진정한’ 운동권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변화는 ‘프티부르주아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지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은경의 진솔한 자기 고백을 듣고 난 지수가 은경의 품으로 머리를 묻을 때, 마침내 지수도 은경과 그녀의 친구들이 헌신하는 싸움에 동참하며 변화하게 될 것임을 소설은 암시한다. 이밖에도, 문학회에서 오형민을 짝사랑하며 지수와 삼각관계에 놓였던 명화 역시 은경과 은수의 운동권 서클에도 들어가 보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곧 떨어져 나가 삶의 방향에 대한 회의와 방향을 거듭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자취를 감춘 명화는 “스물두 살짜리 여자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겪을 것 다 겪어 보겠다는 내용의 엽서 한 장을 지수 앞에 남기고 자신의 길을 떠난다.³²

31 공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2』, 동녘, 1991, 221-222쪽.

32 위의 책, 197쪽.

이처럼 공지영의 소설 플롯이 보여 주고 있듯,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 신념에 대해 회의하는 운동권 여대생 인물들에게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진정한’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 또는 그것을 위한 통과제의처럼 주어진다. 성폭력으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며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여 분열과 소외, 혼란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운동권 여대생 주체화의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유럽 역사에서 진실성과 진정성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온 과정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으로 포착되었던, ‘정직한 영혼(the honest soul)’에서 ‘와해된 의식(the disintegrated consciousness)’으로의 변화, 곧 근대적인 자아 양식이 변화하는 양상과 일정 부분 겹쳐진다.³³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의 『라모의 조카(Le Neveu de Rameau)』와 관련하여 헤겔은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와해된 의식’을 자아가 혼돈과 붕괴, 소외를 겪고 한 단계 더 진보한 인간 정신의 사례로 분석하였는데, 즉 주체의 외부(사회)에서 주어진 규범적인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소외를 통해 의식의 내면에서 ‘순수한’ 자아를 찾을 때 주체의 ‘진실성(sincerity)’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³⁴ 운동권 여대생 소설에서는 그녀들이 애써 동일시해 보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던 운동권 남성들의 도덕 규범적 주체인 ‘정직한 영혼’으로부터 벗어나 한 단계 더 ‘진보한’, 또는 ‘진정한’ 운동권 주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와해된 의식’의 자기 소외 단계가 바로 성폭력이라는 사건으로 코드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직한 영혼’과 ‘와해된 의식’ 사이의 대비,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이라는 패턴은 은경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남자 선배의 배신 이후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참 많이 울었다……. 배신감이 컸지. 운동에 대해 회의도 했고……. 갑자기 내가 버텨 온 시간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면서……. 나는 시위 주동

33 Lionel Trilling, *ibid.*, pp. 33-52.

34 *Loc. cit.*

을 준비했지. 그것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했어. (….)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혐오하던 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뭘랄까…… 지사적 허영심? 뭐 그런 거……. 그 이후로 집을 나왔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던 안락함을 버리고, 그 선배에 대한 복수심까지도 나는 버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 운동이 요구했던 게 일차적이었지만 내가 출판업을 택했던 것도 어찌면 그런 이유일지도 몰라.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신봉하는 이념들, 그것조차 한 번 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사상들과 그 이념들이 썩어서 향그러운 흠냄새를 피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될 것이지. (….)”³⁵

은경은 남자 선배들보다 자신의 진정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남자들처럼 시위 주동자의 역할을 맡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은경 스스로 혐오했던 남자 선배들의 도덕주의적인 “지사적 허영심”, 즉 겉으로만 진정성을 연기했던 도덕적 위선이나 허영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다. 무릇 진정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조건들, 출신 계층적 안락함을 비롯해 운동에 대한 (학습된) 생각과 이념까지도 버리고 난 후에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규범적 자아가 무너지고 와해되는 혼란을 겪은 후 마침내 순수한 내면의 자기 성찰에 이르고, 운동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입받았던 “그 사상들과 그 이념들이 썩어서 향그러운 흠냄새를 피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땅의 주인”, 즉 진정한 운동권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남자 선배들이 취직과 군입대로 떠나가는 동안 은경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노동 운동 관련 출판업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개척하여 운동의 밑바탕이 되고자 한다. 기실 소설이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남자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한편, 한때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운동권 여대생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초점화된다. 성폭력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혼란, 자기 분열과

35 공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2』, 동녘, 1991, 223쪽.

소외를 겪었던 은경을 비롯해, 학내 시위 도중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내던졌던 동숙,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는 바람에 현장 교육 도중 무단이탈했던 은수와 같이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았거나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비로소 진정성의 주체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숙과 공지영의 소설 속 운동권 여대생들은 결코 광장에서 시위를 선동하거나 도서관 옥상에서 밧줄을 몸에 매고 내려와 구호를 선창하고 유인물을 던지는 소설 속 다른 남학생들처럼 투쟁의 중심 또는 전위가 되지는 못했다. 물론 남자 선배들이 떠났다고 해서 은경이나 은수, 동숙 같은 운동권 여대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명화의 경우에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진다. 현장이라는 음지로 들어가는 일이 더 큰 투쟁을 위한 마중물처럼 여겨졌던 까닭에 오랫동안 그녀들의 진정성에 드리워졌던 의구심은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운동권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었던 진정성의 상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데, 은경과 명화가 겪은 성폭력은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처럼 ‘공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따라서 무대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에서 은재가 말한 그대로 권인숙과 그녀들은 경우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때 “경우가 다른 것은 능욕이나 고문이나가 아니었다. 적이냐 아니냐도 아니었고, 그것은 오직 권인숙과 자신의 다름이었다.”³⁶ 그녀들은 권인숙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권인숙이 법정에서 “나는 노동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에서 그 대사의 주인공은 은재가 아닌 만우였다. 소설 속에서는 은재가 만우에게 당한 성폭행의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만우를 “진짜 노동자”로 재탄생시킨 후 공판정에 선 만우의 입을 통해 “나한테 진짜 노동자가 되라고 말해준 여자”가 바로 은재였음을 공표하도록 만든다.³⁷ 이 카타르시스를 예비하기 위해 일찍이 소설의 전반부 클라이막스에서는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죽을 뻔 했던 은재가 자신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용서를 빌던 만우 덕분에 구출된 후, 만우를 향해 진짜 노동자가 되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기는 다

36 김인숙, 앞의 책, 168쪽.

37 김인숙,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 하』, 동광출판사, 1991, 237쪽.

음과 같은 장면을 마련해 둔다.

“만우 씨.”

은재가 다시 만우를 불렀다.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뭐든지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만우가 말했고, 은재는 다시 만우를 불렀다.

“만우 씨.”

“네.”

“훌륭한…… 진짜 노동자가 되세요. 건강하게…… 훌륭하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

“난 이대로 살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렇지만, 만우 씨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다고 했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건강하고 훌륭한, 그래요 그런 노동자, 진짜 노동자가 되세요.”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그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나는 밀려났지만,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험벗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가세요. 경섭이가 갔듯이. 그렇게 당신도 가세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끊임없이 더욱 격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나는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남고…….³⁸

성폭행 사건을 겪은 후 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관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은재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간청하는 만우에게 진짜 노동자가 될 것을 주문한다. 만우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인 순결을 ‘진짜 노동자’, 진실로 순결한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대신 갚으라는 뜻이다. 이후 소설의 후반부는 예상대로 은재의 뜻을 따른 만우가 공장에 들어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파업 투쟁에 앞장서

38 김인숙,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 상』, 동광출판사, 1991, 263쪽.

는 ‘진짜 노동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만우에게는 오직 “은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도 파업도 의미가 있었”고 “은재가 있었기에 전태일, 박노해도 의미가 있었”다.³⁹ 사랑에 눈이 먼 만우의 이러한 맹목성은, 일찍이 은재의 미숙함과 부르주아적 근성에 대해 비판했던 은재의 전연인 경섭조차 만우를 변화시킨 것은 은재의 영향이라고 인정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가 전개되는 내내 은재는 성폭행의 상처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위선과 허위에 대한 증거라고 여기며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확대한다. 만우가 파업 중인 공장을 찾아가 바라보며 “그러나 여긴 이들의 땅, 내가 그 순결을 더럽힐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읊조리는 은재의 독백은 진정성에 대한 결벽증적인 강박에 사로잡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⁴⁰ 은재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 혐오와 부정은 수치심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실상 이 수치심, “은재의 혹심한 부끄러움은 상실된 육체의 순결 때문이 아니었”고, “스스로 순결을 던져버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이 문제적이다.⁴¹ 소설 속에서 은재에게 “상실된 육체의 순결”이라는 문제, 즉 만우에게 육체적으로 강간당한 일은 이미 극복된 문제처럼—달리 말하면, 강간한/당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여겨지고 있다. 김인숙의 소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은재의 영혼이 스스로 ‘순결’을 던져버렸다는 사실, 트릴링과 헤겔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신은 ‘정직한 영혼(honest soul)’이 아니었다는 사실, 다시 1980년대적인 어법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진정한 운동가적 주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성폭행을 계기로 은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코드 속에서는 은재가 겪는 자아 분열과 자기 소외, 자기 존재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의식이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로 이해될 여지는 없다. 그것은 다만 주체가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순수한’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려는 주체화의 과정, 즉 주체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될 뿐이다.

39 김인숙,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 하』, 동광출판사, 1991, 167쪽.

40 위의 책, 133쪽.

41 위의 책, 226쪽.

결과적으로 은재는 소설의 서사가 전개되는 내내 이어지던 그 지난한 진정성의 시험을 통과한다. 앞서 언급한 만우의 법정 고백 직후 등장하는 은재의 난데없는 구토 장면은 은재 영혼의 ‘순결’이 회복되어 마침내 주체의 진정성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고하는 지극히 소설적인 장치다. 은재는 만우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재판정을 나서며 일생 동안 숨쉬어온 오욕의 공기를 다 토해내듯 구토와 신음을 내뿜는다. 이윽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로 자기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진정성의 주체로 거듭났음을 선언한다. 은재는 자신을 구원한 것이 만우의 순결한 영혼이라고 믿는다. “한때 짐승이었던 이 남자”는 “자신의 순결로 끝내 일어”서 “세상을 구할 남자”이며, “언덕도 오르지 못하고 그저 뒹굴며 헛된 영혼 속에서 끊임없는 괴로움밖에는 벗할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할 남자”였다.⁴² 그러나 이 구원은 은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은재를 구한 만우는 은재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만우는 말한다. “은재 썬 구세주예요. 나 같은 놈까지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전부요.”⁴³ 자기 희생을 통해 구제불능의 밑바닥 인생을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게 한 은재의 진정성은 이 세상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만큼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만우가 저지른 성폭행이라는 죄는 이미 사함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권인숙이 법정에서 외쳤던 “나는 노동자입니다”라는 주체성의 정언적인 표명은 실로 권인숙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권인숙이 섰던 법정에 만우를 대신 내세우고 그의 입을 빌려 “나한테 진짜 노동자가 되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은재의 주체성을 대리 공표하는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의 서사는 마치 그러한 권인숙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여대생 주체의 예외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 같다.⁴⁴ 모두가 권인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노동자와 거리낌 없이 동일시할 수 있는 ‘정직한 영혼’의 진정성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운동권 여대생에게 남은 차선책이란 자기 자신을 대신할 ‘진짜 노동자’를 만드는 것뿐이

42 위의 책, 246쪽.

43 위의 책, 245쪽.

44 위의 책, 234쪽.

라고. 이 일련의 과정을 견디고 통과하는 가운데 운동권 여대생의 자아는 산산이 부서진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이 과정을 견디고 통과하기 위하여 운동권 여대생은 심지어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자신을 구원한 남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기만하고 억압하며 산산이 부수어야 한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난 ‘와해된 의식’이 될 때까지 자아를 몰아붙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이 ‘와해된 의식’은, 다시 헤겔과 트릴링에 따르면 진실성과 진정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자아의 양식으로서, 운동권 주체 수립의 정당성에 필요조건인 진정성을 입증하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만우의 강간으로 망가진 은재의 자아는,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폭력과 그 극복 과정을 온전히 겪는 동안 형성된 주체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성폭력이 운동권 여대생을 주체로 취임시키는 통과제가 되는 서사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에 가해진 폭력, 그리고 그 극한적인 극복은 주체 수립의 문학적 코드로 작동하였다.

4 결론: 송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1990년대 운동권 여대생 소설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주체 구성의 기획은 비단 운동권 소설의 문학적 코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 구성의 에토스 자체가 변화하는 양상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1980년대 운동권 주체의 진실성—김홍중을 비롯하여 기존의 논자들에 의해 흔히 진정성(authenticity)으로 운위되어 왔지만 1980년대에 관해서라면 실상은 그것의 앞선 형태인 진실성(sincerity)이 더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이다—은 주체와 타자의 일치·합일에 대한 동일성의 환상에 정초하였다. 이는, 이남희의 표현을 따른다면 운동권의 ‘도덕적 특권 담론’, 즉 지식인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억압과 착취의 희생양인 민중과 하나 되는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률을 만들어 냈다.⁴⁵ 이 (남성 지식인 중심의) 운동권 주체는 그가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대상인 민중이라는 타자와의 합일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은 애초에 지식인인 운동권 주체와 민중이

45 이남희,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385-388쪽.

라는 대상 사이의 계급적 격차와 구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도덕적 특권 담론’이라는 표현 그대로 특권 계층으로 간주되는 운동권 지식인에게 부여되는, 다시 말해 지식인의 계급적 특수성에 기초한 도덕률이 민중과의 일치·합일이라는 동일성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역설이었다.

1980년대 당시에 이 불가능한 역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데는 앞서 살펴보았던 열사라는 숭고의 도덕적 기획이 한몫했다. 숭고란, 어떤 것을 숭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의 바깥에서 그것을 판단할 척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의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안에서 순전히 그것 자체로 동일한 것—자기동일성—을 승낙하는 것이다.⁴⁶ 즉 숭고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어떤 다른 비교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숭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사의 표상은 어떤 다른 대상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한 판단과 평가를 넘어서는 것일 수밖에 없다. 가령, 우리는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민주화운동에 정말 합목적적이었는지 따위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요구되지도 않고, 또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이와 같이 열사와 같은 극단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는 숭고의 도덕이 1980년대 운동권의 헤게모니적 주체를 형성시키는 정신일 때, 앞서 지적한 대로 동일성의 환상에 기초해 있는 주체의 진실성(sincerity)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전환기의 혼란을 거치면서 운동권 주체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운동권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관계에 내재해 있던 미묘한 차이와 긴장도 서서히 표면화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논의한 김인숙과 공지영의 운동권 여대생 소설 또한 그 표면에 나타난 균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젠더적·계층적으로 상이한 조건에 놓인 운동권 여대생에게 운동권 주체의 진정성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음이 이들의 소설에서 드러남으로써 1980년대적인 주체의 도덕적 진정성에 내재한 역설이 가시화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고문 폭로 사건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주체가 되었던 권인숙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운동권 여대생 주체 구성의 한 가지 조건, 즉 섹슈얼리티와 그것에 가해진 폭력의 극복 문제를 문

46 이마누엘 칸트, 앞의 책, 255쪽.

학적 코드로 삼아 운동권 여대생 주체의 서사를 탄생시킨다. 이 새로운 주체의 서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민중과의 일치·합일, 즉 동일성의 도덕률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주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멜로드라마적인 플롯을 차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의 지수와 기훈,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의 은수와 만우는 남녀 간의 열정적 사랑을 통해 계층적 간극과 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을 극복해 나가며 운동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체의 진정성을 둘러싼 감수성과 이념은 숭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가 기훈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부모님의 반대, 운동에 대한 불철저한 신념, 상류층의 생활 방식 등—을 떨치고 마침내 김해 교도소에 수감된 기훈을 처음 면회하러 가는 발걸음은 “지수의 아름답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⁴⁷ 시위에서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 준 적도, 현장에 들어가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발휘한 적도 없지만, 오랜 내적 방황과 그것을 끝낸 후 내딛은 발걸음만으로도 그녀는 ‘아름답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윤리적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진정한’ 것이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도덕 이념을 성취하는 숭고한 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인한 내적 갈등과 방황을 거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낭만적인 일이다. 이 ‘진정한’ 자아 정체성(selfhood)의 발견에서 핵심은 숭고한 이념의 높이에 도달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 즉 자기 내면의 가장 깊고 낮은 바닥, 낭만적인 영혼의 심연을 향하여 내려가는 데 있다. 헤겔의 주체의 변증법에 나타난 인식론적 변화에서 주체의 진정성을 규정하는 본질이 도덕적인 숭고함(nobility)과 완전함(wholeness)으로부터 비천함(baseness)으로 이동하였던 것처럼 말이다.⁴⁸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깊고 낮은 ‘진정성’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여성 인물들에게 일종의 통과제의로서 성폭력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자아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자기 소외와 의식의 분열,

47 공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2』, 동녘, 1991, 256쪽.

48 Lionel Trilling, *ibid.*, pp. 35-42.

자기 존재의 부정과 같은 일련의 내적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깊이에 도달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의 은재의 경우처럼 성폭력 그 자체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그것은 주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그래야만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문학적 코드이다. 김인숙과 공지영의 이 두 소설에서는 주체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에 매몰되어 당시 운동권 여대생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폭력을 비판적으로 성찰 또는 고발하거나 섹슈얼리티의 취약성 자체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두 작가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는 김인숙과 공지영의 이 두 소설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방향성과도 얽혀 있다. 1990년대 여성소설은 추문으로만 여겨져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야 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인 여성의 자기 서사 속에 통합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제시하기 시작한다.”⁴⁹ 그러나 동시에 1990년대 여성소설에서 “여성 섹슈얼리티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는 이 시기 여성소설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모순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했다.⁵⁰ 1990년대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두 소설가의 ‘자기 서사’이기도 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이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문제에 접근했을 때, 남성중심주의적 운동권 주체로부터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탈환하기 위한 여성문학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의욕적이고 대담한 모험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것에 가해지는 폭력에 내재한 여러 겹의 아이러니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 아이러니를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듯 단순하게 처리하려 했을 때, 김인숙과 공지영의 두 소설에서 드러난 한계처럼,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서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다소 선부르게 자유주의적 성 해방을 선언했던 1990년대 여성문학의 착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1990년대 여성문학의 의의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49 심진경, 『더러운 페미니즘』, 민음사, 2023, 138쪽.

50 위의 책, 같은 쪽.

재논의가 필요하고 또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이러니들을 거느린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입체성과 복합성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공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1·2, 동녘, 1991.
김인숙,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 상·하, 동광출판사, 1991.

단행본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130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9-24쪽.
심진경, 『더러운 페미니즘』, 민음사, 2023, 138쪽.
이남희,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385-388쪽.
인아영, 『진창과 별』, 문학동네, 2023, 144-145쪽.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 40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편, 『우리들의 딸 권양: 고문·성고문 자료 집 I』, 민중사, 1987, 33, 236쪽.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252, 255쪽.
Trilling, Lionel. *Sincerity and Authenticit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5-6, 24-16, 33-52.

논문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김인숙, 공지영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271-303쪽.
김은하, 「이중의 글쓰기와 비스듬히 읽기—김인숙의 『긴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77호, 우리문학회, 2023, 137-166쪽.
김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성된 주체 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 상징정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03.

배하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 1980년대 운동권 여대생의 정치적 주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40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3-25쪽.

이한나, 「부인된 성적 자기결정과 기이한 평화—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52-81쪽.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74호, 문화과학사, 2013, 87-138쪽.

기타

김철, 「진정한 대중문학을 위하여」, 『실천문학』, 1991년 가을호.

「대학마다 ‘여학생 급증’에 고심」, 『동아일보』, 1983. 12. 12.

「[르포] 오늘의 여대생—화염병에서 마이카까지」, 『여성동아』 1986년 7월호.

「[독점인터뷰] 13개월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성고문 사건’의 권양」, 『여성동아』, 1987년 8월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사이트 <<https://www.kdemo.or.kr/patriot/category/%ED%95%99%EC%83%9D%EC%97%B4%EC%82%AC/page/1>> 최종 검색 일자: 2024년 5월 15일.

Abstract

The Irony of Sexuality and Violence (2)

:The Making of the 1990s Political Subjectivity in *Undongkwon* Female College Student Novels

Haeun Bae(DGIST)

When Kwon In-sook became a symbolic figure representing *undongkwo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late 1980s, a significant shift emerged in the symbolic system of the political subjectivity. This shift is symptomatically reflected in the novels about un-

dongkwo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1990s. Kim Insuk's *Kinbam ch'alpke tagaon ach'im*(The Long-Night and the Morning Coming Shortly) and Gong Jiyeong's *Kürigo küdürüi arümdaun sijak*(And Then, Their Beautiful Beginning), both by female writers with *undongkwon* backgrounds, explore the issues of *undongkwon*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ity and violence, and the construction of their political subjectivity. This paper analyzes how the theme of *undongkwon* female students overcoming their sexuality is codified in the two novels by Kim Insuk and Gong Jiyeong, which had considerable popular influence at the time. Based on this analysis, it elucidates how the hegemony of subjectivity transitions from the 'sublime morality' to the 'romantic ethics' from the 1980s to the 1990s.

Key words: *undongkwon* female student, sexuality, political subjectivity, sincerity, authenticity, 1990s, romantic ethics.

논문투고 / 2024.07.15.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